



진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뉴스

주 소: 서울 금천구 독산로 36길7
발행인: 이계철 라파엘 주임신부님
편 집: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 편집실

이러한 곳 발현하신 성모님! 우리 공동체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진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그리스도 왕 성당은 5월26일(토) 오후 7시 30분 280여 명의 신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모님의 밤 행사를 하였다.

이날 행사는 성모님께 화관 씌우기와 성모님 첫 발원인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동영상과 주임신부님 (이계철 라파엘)께서 발현에 대하여 강론을 하였다. '성모님 첫발원은 서기 40년에 야고보사도에게 발현 하였으나 교황청의 공인된 첫발현은 1531년에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은 카톨릭으로 개종한 원주민 디에고에게 발현 하였다. 1858년 프랑스 루르드 성모 발현과, 1871년 1월17일 포르투갈 파티마의 성모님발현은 세계 3대 발현지입니다.

당시 스페인의 압제 아래 수많은 멕시코 원주민이 살해당해 10%만이 살아남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모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늘 듣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과 희생을 알고 있다. 가서 나의 존재를 알려라"라고 하셨습니다. 디에고는 당시 주교에게 두 번이나 가서 성모님의 발현을 알렸으나 가난한 원주민의 이야기를 믿어줄리 없습니다.

세번째 성모님과 만나기로 한 날 디에고는 약속을 어깁니다. 백부님이 아파서 병자성사를 해줄 신부님을 모시러 간다는 핑계로 평소와 다른 길로 갔으나 3번째로 성모님이 발현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백부님 병은 나았다 그리고 저기 언덕으로 가서 꽃을 꺾어 오너라." 언덕에 가보니 겨울임에도 온갖 꽃들이 만발해 디에고가 꽃을 꺾어 오자 성모님께서 망토에 꽃을 담아 가서 사람들에게 이 망토를 보여 주면 이제는 믿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에고가 주교 및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망토를 펼치자 꽃은 사라지고 성모님 모습이 망토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적을 인정 하고 원주민에 대한 학살을 멈추어 원주민들은 카톨릭으로 개종해 멕시코 주민의 90%는 카톨릭

신자라는 과달루페 성모님발현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남북 평화를 위해기도 합시다. 그리고 성모님의 겸손과 순종, 사랑과 인내심이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를 꼭 받아 주실 것입니다.'란 말씀과 성모님께 화관 씌우기 축복송헌 성모님께 드리는 글 성가대의 아름다운 특송으로 성모님의 밤 행사를 마쳤다.

